

# 영국의 정체성: 연속성과 순응성의 역사적 고찰

이동일\*

## 차례

- I. 서론
- II. 정체성 탐구를 위한 4영역
  1. 영국의 종교성
  2.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달
  3. 영국 글문화의 전통
  4. 영국의 사상적 배경과 특징
- III. 결론

## I. 서론

영국과 영국국민에 대해 알아본다는 것은 마치 심해에 매장돼 있는 유물을 찾아내어 그 값어치를 규명해보는 작업과 흡사하다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영국의 특성은 그 총체적 가치가 밖으로 표출돼 있지 않다는데 있다. 가시적 문화유물들을 제외하면 이 나라가 한 때 세계의 3분의 1을 점령했던 대제국이었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해준다. 키플링은 영국이 지닌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이젠 존재하지 않으나 그러나 아직도 영광과 가치를 가진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 한편 볼퍼 백작은 '과거에 해보지 않았던 현명한 일을 한다는 것보다는 늘 해오던 우매한 일을 하는 편이 훨씬 좋다'라는 말로써 관습에 순응하는 영국인의 특성을 나타내기도 한다. 영국은 아직도 입헌 군주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상당수 대학은 중세의 전통과 관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볼링브로크 백작은 '우리는 대륙에 속하고 있으나 대륙과는 떨어진 곳에 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서는 안된다'라는 말로써 영국의 지정학적 위치에 관한 특성을 전하

\* 한국외국어대학교 영어대학 문학전공 교수

고 있다. 보수와 변혁이 조화를 이루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 오래된 제도는 새로운 추세를 허용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영국의 정체성을 규명할 수 있는 4개의 주된 영역--① 종교 ② 정치(의회주의) ③ 글문화(교육) ④ 사상적 배경--을 설정하여 통시적 관점에서 형성 및 발달과정 그리고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정체성 탐구를 위한 4영역

### 1. 영국의 종교성

16세기 당시 이류국가였던 영국은 스페인 무적함대를 격파하고 해외로 눈을 돌리기 시작한다. 이 시기는 우연히도 오늘날 영국 국교로 통하고 있는 성공회 (Church of England, Anglican Church)의 국교확립시기와 일치하고 있다. 영국 본토에서의 본격적인 기독교 전래는 597년에 로마의 그레고리 교황이 파견한 성자 어거스틴(St. Augustine)이 이끈 선교단에 의해 시작된다. 3세기경에 로마군단에 의해 기독교가 전래되지만 드루이드교(Druoid)를 비롯한 토속 종교의 저항을 두려워한 로마군단은 기독교 중심의 종교정책을 감행하지 못한다. 로마군단이 유럽 본토로 돌아가자 오늘날 덴마크와 독일 북부에 거주하고 있던 앵글, 색슨, 주트 족들이 영국 섬에 정착하게 된다. 이들은 종교적인 차분한 심성과는 거리가 먼 야성적이며 전투를 좋아하며 영웅주의를 숭상하는 종족들이었다. 영국 섬의 주인이 된 이 거친 종족들에 대한 개종은 597년 성자 어거스틴에 의해 시작된다. 영국의 켄트(Kent)에 도착한 어거스틴은 켄트 왕을 개종시키는데 성공한다. 영국에서의 그리스도교 개종은 순조롭게 진행되어 중북부의 노섬버리아 지역까지 확대된다. 곧이어 노섬버리아는 기독교를 기반으로 문화적 황금기를 구가한다. 비드사를 비롯한 해박한 성경 주석가들이 배출되며 일부 수도사들은 대륙으로 건너가 선교활동에 참여하고 앨퀸인(Alcuin: 735-804)같은 수도사는 샤를마뉴 황제에 초대되어 프랑스의 학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Alexander 70-75). 종교와 문명의 역수출이 이루어지게 된 셈이다. 기독교

가 전래된 후 실로 1세기만에 대부분 영국 지역이 기독교 문화권에 들어오게 된다. 8세기 이후 영국 전역은 로마 교회에 귀속하게 된다. 영국의 왕들은 기독교 신자였을 뿐 만 아니라 발달된 로마 제국의 전통을 이어받은 로마교회로부터 정치 및 행정조직에 관한 도움을 얻게 된다. 주교와 대주교는 왕을 보좌하는 재상을 겸하기도 한다. 교회측에서는 왕정을 지지했으나 이는 교회의 규율을 지키도록 하는데 세속적 권력의 힘이 필요하기 때문이었다. 중세에 접어들면서 기독교는 국민들의 전 생활영역에 깊이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 출생, 결혼, 사망에 관한 교회 의식은 물론 중요한 절기가 교회에 의해서 관장되었기 때문에 기독교는 영국인들의 일상사는 물론 의식구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막강한 권한을 쥐게된 중세의 성직자들은 일반인들의 단순하고 강렬한 신앙과 대조적으로 때론 타락과 치부로 치닫게 될 때도 있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속세의 행복을 거부하고 가난을 신조로 결성된 탁발수도회가 영국에 들어오자 일반 민중들은 열렬한 환영을 보낸다. 14세기에 있어서도 일부 성직자들의 타락이 지속되자 교회의 개혁을 부르짖으며 존 위클리프(John Wycliffe: 1320-1384)가 개혁의 선봉에 서게 된다. 그는 설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성찬례에 성체가 현존한다는 교리인 화체설을 부정하여 이단자로 몰리기도 한다(Edwards 127-8). 나중에는 교황의 권위를 부인하면서 성서만이 그리스도교의 유일한 근원이라고 주장한다. 성서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선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영어성경이 필요하다는 생각에 위클리프는 당시 라틴어와 불어로 되어 있는 성서를 영어로 번역한다. 그의 영어성경 번역은 신학자, 성직자, 지식인들의 전유물이었던 성서를 일반대중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영어 성서의 파급효과는 실로 대단한 것이어서 도회지의 일반인들이 모인 곳이나 시골의 주막에서도 성서를 토론하는 장면이 쉽게 목격되었다. 성서에 대한 이러한 토론 문화는 정치에 관한 토론 문화와 결부되어 영국인들의 특성으로 자리잡게 된다. 중세의 영국교회는 위클리프와 같이 부분적으로 로마교황의 권위를 약화시키는 주장이 대두되기는 했으나 로마 카톨릭에 대한 본격적인 반대운동은 일어나지 않았다. 로마 교황과의 단절은 헨리 8세에 의해 이루어진다. 영국 의회는 사실상 로마교회와의 단절을 의미하는 일련의 조치들— 영국 국왕을 교회의 최고 수장으로 하고 종교, 세속적 재

관련 부여, 교황에 바치던 수입헌납제를 폐지 등—을 취하게 된다. 이러한 극단적인 조치들이 가능하게 된 이면에는 외세의 간섭을 벗어나 자주권을 확보하자는 국민의식이 작용하고 있었다(Prescott 125). 로마 교황청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영국의 종교개혁은 대대적인 수도원 폐쇄와 그에 귀속된 막대한 재산의 몰수로 이어진다. 구교를 고집하던 자들을 처단하고 이번에는 로마교회로부터 분리한 프로테스탄트들을 탄압하기 시작한다. 헨리 8세에 시작된 종교문제는 교회 분리만으로 해결될 수 없었다. 구교에 대한 박해는 메어리가 여왕에 오를 때까지 계속되었다. 메어리 여왕은 순교자적인 차원에서 영국국민을 구교로 복귀시키기 위해 1555년 이단 단속령을 부활하여 반대파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을 감행한다. 메어리 여왕이 병사하자 엘리자베스 여왕이 등극한다. 엘리자베스 여왕은 종교문제는 정치적 문제든 시간을 갖고 타협을 유도하는 화해 정책을 펼친다. 영국의회는 로마교황의 권한을 폐지하는 안건을 통과시키고 모든 교구에 영어 기도서와 영어예배를 의무화하는 종교통일령을 가결한다. 헨리 8세 때부터 시작된 종교개혁은 이제 구체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고 성공회는 국교로서 확고한 기반을 다지게 된다. 엘리자베스 여왕 통치 시기에도 종파간의 대립은 여전했으나 신앙의 열기는 매우 높았고 청교도(칼빈파에서 파생된 Puritans)에 대한 관심도 고조되고 있었다. 성서는 일반 가정의 필독서였고 폭스(Foxe)의 〈순교자 열전〉과 같은 신앙서적이 일반인들의 애독서였다. 엘리자베스 뒤를 이은 스코틀랜드 출신인 제임스 왕은 원래 칼빈파 소속이었다. 영국에 온 제임스 왕은 교회가 위계질서를 인정하고 국왕이 그 최고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국교회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한다. 1604년 이후 국왕은 국교회의 의식을 지키기를 거부하는 청교도 목사 300명을 교회로부터 추방한다. 이 때부터 영국의 사제는 세파로 나뉘게 된다. 첫 째는 고교회(High Church)로서 카톨릭 교회와 가까웠고 튜더 왕조가 지시한 의식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둘째로는 비국교도인 장로파(Presbyterians)로서 이들은 국교회에 소속되어있었으나 국교회를 개혁하려고 있었다. 셋째로는 독립파(Independents) 또는 조합교회파이며 이들은 국교회의 감독과 장로파의 회의를 부인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교회라는 것은 각자의 의사에 따라 모여든 그리스도교의 집단이었다. 조합교회파의 신교도들은 영국에 거주하는 한 그들의 순수한 신앙을 지킬 수 없다고 단정하고 1620년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 정착한다. 제임스 1세에 이어 찰스 1세(Charles I: 1600-1649)가 즉위하자 영국은 정치, 종교 문제가 뒤엉켜 건잡을 수 없는 내란에 휩싸이게 된다. 왕당파와 의회파가 맞서 싸우게 된다. 열렬한 국교도인 찰스 왕의 군대는 청교도인 올리버 크롬웰(Oliver Cromwell: 1599-1658)이 이끈 철기병으로 구성된 의회당에 패하게 되고 왕은 처형당하게 된다. 크롬웰은 영국을 공화국(the Commonwealth)으로 만들고 스스로 호민관이 되어 정권을 장악한다. 청교도들은 엄격한 금욕주의를 생활화했으며 성서를 글자 그대로 지키면서 살아갔다. 이 시기에 조지 폭스가 교우회를(Society of Friends)를 조직했고 이것이 후에 신앙을 나타낼 때 몸을 떠는 일이 있다고 해서 퀘이커교도(Quakers)라는 별명을 얻게 된다. 공화정이 끝나고 왕정복고가 이루어져 청교도 정신이 억압을 받게 되었지만 이 정신은 후대에도 계속 이어져 영속성으로 대변되는 영국의 정체성에 기여하게 된다. 이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강직했고 청렴했다. 노예제도와 전쟁에 반대했고 오늘날까지도 근엄하게 일요일을 지키는 원칙주의자들이었다. 청교도 혁명은 영국인들의 의식세계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게 된다. 청교도 혁명과 내란으로부터 나타난 한가지 보편적인 진리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오직 한가지 보편적인 진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Green 235). 종교의식 및 교리를 비롯한 제반 사회적 가치 문제에 있어서도 오직 한가지 믿음 내지 진리는 불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피를 수반한 긴 논쟁을 치르고 나니 결국 어떤 사람도 꼭 옳을 수가 없고 어떤 사람도 꼭 그릇될 수가 없다는 것이 영국인들의 의식 속에 깊게 자리 잡게 되었다. 이제 영국 사회는 계급과 획일과 개인적 관계에 입각한 사회에서 다수와 관용의 개념에 입각한 사회로 바뀌게 된다. 즉, 전제국가에서 활기 있고 실리주의적인 다원주의 국가로 옮겨가게 된 것이다.

17세기 후반부의 영국은 이성과 합리주의 시대의 도래를 예견하고 있었다. 뉴턴의 출현은 영국인의 사고에 일대전환을 가져다준다. 그의 광학이론과 역학 법칙은 인간이성의 위대함을 확인시켜준 계기가 되었다. 이성주의는 교회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왕정복고 시대의 기독교 사상가인 아이작 바로우(Isaac Barrow)는 수학자였는데 그의 신학은 과학적이고 윤리학은 공리주의적이었다. 또한 설교자 킬렛슨은 종교적인 생활이 얼마나 현명한 것인가를 가르치면서 마치 기하학의 증명처럼 정리된 증거를 가지고 증명하기도 했다. 이러한 류의 문화

하고 합리적인 종교관은 영국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주게되었고 오늘날의 영국인들의 종교관에서도 여전히 엿볼 수 있다. 18세기에 있어 온화하고 이성적인 국교회는 국민 중에서 보다 유복한 계급과 조화하고 있었으나 빈곤한 도시 노동자와 지방 농민들에게는 별다른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러한 대중적 열망을 만족시킨 사람이 바로 존 웨슬리(John Wesley: 1703-1791) 목사였다. 웨슬리 목사는 신앙은 이성의 작용이 아니라 생동하는 성령을 체험하는 신과의 직접적인 교감을 중시했다(Edwards 257). 그가 주도한 메소디스트에 의해 영국인들은 다시 한 번 그리스도교의 초기의 열렬한 신앙을 체험하게 된다. 이러한 영향은 다른 교파에도 번져 모든 종교가 전보다 더욱 감동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러한 감성운동은 하류계급의 불만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된다. 이는 정치적인 면에서 중대한 의의를 지닌다. 급진적인 프랑스 혁명 사상이 종교로 인해 순화된 감성을 지닌 영국인들의 정서에 파고들지 못한다. 영국은 안정 속에서 산업혁명을 달성하고 대 제국으로 치닫게 된다.

## 2. 영국 의회 민주주의의 기원과 발달

영국은 일찍부터 의회 민주주의를 정착한 나라로 기억된다.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의를 존중하는 영국의 국정운영 전통은 색슨 왕조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색슨 왕들은 일종의 자문기관인 현인회의 구성원이었던 현인들과 국사를 논의했으며 그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현인회는 오늘날 의회가 지니는 통치권의 견제기관이나 입법기관의 성격을 지니지는 못했다(Crossley-Holland 47-8). 이러한 현인회는 왕을 선출할 수 있는 막대한 권한을 지니고 있었는데 이들에 의해서 참회왕 에드워드(Confessor Edward)와 색슨계 마지막 왕인 해럴드(Harold)가 왕위에 오르게 된다.

1066년 노르만계의 윌리엄(William the Conqueror)이 영국을 정복한 후 영국에서는 절대군주제가 아닌 중신의 봉건적권리를 존중하는 군주제가 발달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귀족들의 봉건적 특권을 둘러싸고 왕과 귀족간의 갈등이 심화되어 마침내 존 왕과 귀족들 사이에 일대 혈전이 벌어진다. 전투에 패한 존왕은 1215년 대헌장(Magna Carta)에서 귀족들과 자유민의 특권을 공표한다.

그 대표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국왕이 봉건적 계약 중에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납금을 징수하려 할 때에는 반드시 귀족과 토지 소유자로 구성되는 대자문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자유민은 귀족의 합법적이 판결 또는 국법이 정한 바에 따르지 않고서는 구속, 추방 기타 여하한 제재도 받지 않는다.

중세의 개인들은 귀족이 아닌 이상 정치참여가 허용되지 않았으나 독립적인 권한을 지닌 공동체--대학, 동업조합, 탁발승 등--의 일원으로서 부분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었다(Crossley-Holland 145).

1239년에 사용된 의회(Parliament)라는 말은 '논의'한다는 의미로 대자문회의의 토의를 뜻했고 1254년까지 기사는 현황보고서에 출석했지만 자문회의의 구성은 아니었다. 의회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대자문회의는 1305년에 70명으로 백작 5명, 남작 17명, 성직자 및 국왕관리로 구성되었다. 에드워드 1세(1272-1307)에 이르러 근대적 의미의 의회가 형성되는데 국가의 어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국왕의 양식과 귀족의 실력 그리고 공민의 저항이 참조되어 합의에 도달했다. 하지만 대자문회에 소집되는 의원의 자격이 명확하지 못했는데 에드워드 1세 이후에는 귀족과 대표평민(각주 기사 2인 과 도움 대표 2인)으로 구성되었다. 13세기 말에 이르러 기사와 도움대표들이 웨스트민스터 수도사 집회소(Chapter House)에서 비밀 집회를 갖게 되는데 이는 영국 정치사에서 공용단체 대표들이 갖게 되는 최초의 비밀집회로서 하원의 기원이 된다. 상원은 법정에서 기원된다. 하급 귀족인 기사계급은 결혼을 통하여 도시공민과 결합하여 하원의 기반을 다지게 된다. 원래 하원은 기사, 평민대표 그리고 성직자로 구성되었으나 교황과 국왕의 빈번한 갈등을 두려워한 성직자 계급이 세속적 권력을 포기함으로써 성직자 계급이 탈락하게 된다. 성직자 계급의 자발적 기권으로 기사와 공민의 결합은 더욱 가속화되어 하원을 구축하게 되고 귀족으로 구성된 상원과 함께 상하 양원제를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기사와 공민의 결합은 역사상 큰 의의를 지닌다. 비슷한 시기 대륙의 프랑스에서는 귀족과 타 계급간의 장벽이 심했으나 14세기 영국에서는 기사와 공민의 결합으로 계급의 혼합이 이루어지게 된다. 영국의 귀족제도는 개방적인 반면 프랑스는 상대적으로 폐쇄적이라 할 수 있겠다. 영국에서는 프랑스와 달리 귀족계급과 시민계급간의 투쟁이 두드러지지 않는데 이는 바로 중세에 이루어진 계

급간의 혼합에 기인한다. 1679년 영국의회는 〈인신보호령(Habeas Corpus)〉을 제정하여 영국국민은 누구를 막론하고 불법적으로 투옥할 수 없게 했다. 이는 전 제정치와 자유정치를 구분하는 획기적인 법안으로서 영국의회의 커다란 업적으로 간주된다.

### 3. 영국 글문화의 전통

영국민의 글문화에 대한 열의와 집착은 고대 색슨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597년 성자 어거스틴에 의해 남부 지역 켄트(Kent)를 중심으로 전파된 기독교는 야만족인 앵글로 색슨 족들을 개화시키고 영국섬에 본격적인 글문화를 정착시킨다. 8세기 초엽에 이르러서는 영국북부의 노섬브리아(Northumbria)를 중심으로 문화적 황금기를 이루고 유럽대륙에 학문을 전파하기 시작한다. 신학, 역사, 문학, 문법학 등의 만학에 능통했던 비드사의 학문적 역량은 전 유럽에 영향을 끼쳤고 엘키운 같은 신학자는 프랑스 샤를마뉴대제의 궁궐에서 학문을 지도할 정도로 그 명성이 자자했다.

하지만 8세기 후반에 이르자 잉글랜드는 안팎으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밖으로는 바이킹족의 침략에 시달리게 되고 안으로는 문화적 침체에 접어들게 된다. 이러한 총체적 위기를 타개한 인물이 웨스트 색슨 왕인 알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849-99)이다. 기독교 신앙심이 강했던 알프레드 왕은, 나라가 외침에 시달리는 것은 잉글랜드인들의 죄에 대한 신의 응징으로 보았다. 또한 그 죄는 학문의 쇠퇴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에서 기인한다고 여겼다. 그는 학문을 연마하면 하나님의 뜻을 좇아 합당하게 살 수 있는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그는 종교적 사명감에서 국민들을 계몽하는 문화의 부흥에 힘을 쏟았고 한편으로는 국방에도 힘을 기울였다.

알프레드 대왕은 그레고리 교황의 〈성직자의 계율(Pastoral Care)〉의 서두에서 “요크 지역의 험버(Humber)강 이남에는 라틴어로 행해지는 종교의식을 이해할 수 있는 자와 라틴어 서간을 그들의 언어인 고대영어(Old English)로 옮길 수 있는 자가 극히 드물고 템즈(Thames)강 이남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노라”고 애석해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알프레드 대왕은 유용한 라틴어 서적

들을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 당시 언어인 고대영어로 옮겨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거국적인 번역작업에 착수한다. 그가 참여했던 번역서들로는 그레고리 교황의 〈성직자의 계율〉, 비드의 〈영국 교회사〉, 로마 철학자 보에티우스의 〈철학의 위로〉, 오로시우스의 〈세계의 역사〉 등이 있다. 또한 앵글로 색슨 시대(5-11세기)의 국가적 주요사건들을 기록한 〈앵글로 색슨 연대기(Anglo-Saxon Chronicle)〉가 알프레드 대왕 시기에 집필되기 시작한다. 그 당시 서유럽문명사에서 〈앵글로 색슨 연대기〉를 제외하고는 자국어로 쓰여진 연대기를 찾아볼 수 없으니 알프레드 대왕의 업적은 실로 눈부신 것이다. 라틴어로 연대기를 저술하지 않고 당시 모국어였던 고대영어를 굳이 고집한 알프레드 대왕의 의도는 아마도 모국어인 영어에 대한 긍지와 아울러 모국어 사용을 통해 문화의식을 함양하려 했던 것이었다(Alexander 68). 알프레드 대왕의 또 다른 공헌은, 고대영어를 누구나 읽고 쓸 수 있는 토착어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영어교육을 개혁한 것이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모든 자유민의 자제들은 영어를 읽고 쓸 수 있을 때까지 학업에 전념하도록 한 조치가 내려진다. 또한 성직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라틴어를 필수적으로 습득해야만 했다. 알프레드 대왕은 이러한 교육개혁을 위해 수도원을 중심으로 학교를 증설하고 외국으로부터 유능한 학자들을 초청하여 수준 높은 교육을 실시한다. 9세기에 취해진 국가적 차원의 교육개혁은 세계문명사에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값진 문화유산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글 문화의 전통하에서 중세에 이르러 초서(Geoffrey Chaucer: 1342-1400)와 같은 대문인들에 의해 영어가 자국어로 확고히 자리잡게 되고 셰익스피어에 의해 근대영어의 틀이 잡히고 17-18세기에 이르러 문법학자, 성경번역자 그리고 문인들에 의해 영어는 그 깊이와 폭을 더하게 되어 대영제국의 형성과 함께 서서히 세계어로 부상하게 된다.

#### 4. 영국의 사상적 배경과 특징

##### 1) 이신론(Deism)

영국은 17-18세기에 즈음하여 이성(reason)과 합리에 입각한 사회사상, 종교사상, 과학주의가 퍼지기 시작한다. 17세기 에드워드 허버트(Edward

Herbert)에 의해 주창되고 18세기 헨리 존(Henry John)등에 의해 계승된 이신론은 기존의 종교관과 상충되는 것으로서 절대자의 계시나 권위보다는 인간의 이성을 중요시한다. 이신론에 따르면 세계는 신의 창조에 의하지만 그 지배를 떠나서 스스로의 법칙에 따라 움직이며, 신의 존재에 대한 신앙은 계시나 권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이성과 자연(nature)에 바탕을 둔다는 것이다. 이신론에 따르면 절대자에 대한 지식은 인간에 내재해 있는 이성 작용에 의해 얻어지는 것이지 절대자의 계시나 종교단체의 교리 혹은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ussell 377). 또한 신에 대한 형상도 이성적인 사유에 바탕을 두어 질서정연한 이 우주의 합리적인 건축자로 간주한다(Skilbeck 278). 이성과 합리 그리고 자연을 중시한 이신론에서는 당연히 기적이나 추상적인 개념들이 무시되는데 이는 뉴턴(Isaac Newton: 1642-1727)을 선봉으로 하는 과학적 합리주의가 만연한 17-18세기의 사회 풍토와도 무관하지 않다. 영문학사에서도 17-18세기를 이성의 시대 혹은 계몽주의라고 부르는데 현실성을 감안한 소설 장르가 발달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이신론적 종교관은 일부 사상가들을 제외하고는 19세기에 이르러 그 영향력이 감소된다. 종교사상에까지 침투된 이성과 합리주의는 영국인들의 고유한 사상적 전통을 이룬다. 나중에 논의되는 경험주의(Empiricism)와 맞물려 영국은 18-19세기에 걸쳐 근대문명의 총아라 불리는 산업혁명(Industrial Revolution)을 완성하게 된다. 산업혁명은 과학적 합리주의를 저변에 깔고 있는데 17-18세기에 걸쳐 형성된 이성과 합리주의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 2) 경험주의(Empiricism)

영국인의 의식세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상은 다름 아닌 경험주의이다. 학식보다 경험을 더 중시하는 경험주의는 고대 그리스 소피스트(궤변학자)들에서 기원한다. 이들은 선배철학자들의 주된 영역이었던 사변철학에 안주하지 않고 실재적인 현상인 인간이나 사회와 같은 현실성 있는 주제에 눈을 돌린다. 이러한 관심은 나중에 윤리적 과제를 중시하는 스토아학파(Stoics)나 에피쿠루스학파(Epicureans)에 의해 지속된다.

영국에서의 경험주의 시조는 14세기 옥함(Ockham)으로서 그는 물질세계에

대한 지식은 감각작용에 의해 얻어진다고 주창한다. 16세기에 이르러 프란시스 베이컨(Francis Bacon)은 자연에 관한 관측된 데이터를 통하여 이 세계에 관한 정확한 이해를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과학적 방법론의 토대를 쌓는다. 영국 경험주의는 다음과 같은 핵심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① 모든 개념은 그 개념이 적용되는 경험으로부터 파생된다 ② 모든 일이나 사실에 관한 지식은 경험에 기반을 두거나 경험으로부터 이끌어진다. 영국사상사에 많은 경험주의자들이 등장하지만 영국의 근대문명을 쌓아올린 지성인들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사람은 다름 아닌 존 록크(John Locke: 1632-1704)이다. 록크는 '정신에 관한 분석철학의 창시자로' 불리워질 정도로 영국의 근대철학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Mill 256). 경험주의의 대가로 간주되는 록크이지만 '지식은 종교적 신념에 의해 보충되어야한다'는 이론을 피력하기도 한다. 오감각을 기반으로 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록크의 경험주의 사상은 19세기 문인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된다. 록크의 뒤를 이어 조지 버클리(George Berkeley: 1685-1753)와 데이비드 흄(David Hume: 1711-1776)이 활약하게 된다. 19-20세기에 걸쳐서는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과 버트랜드 러셀(Bertrand Russell) 등에 의해서 경험주의 사상은 그 맥이 이어진다.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실증적 입증을 중시하는 영국의 사상적 배경은 영국인들의 실생활에 그대로 적용되어 영국인들의 의식세계를 형성하고 있다.

### Ⅲ. 결 론

영국의 정체성은 종교, 의회제도, 글문화 및 사상적 배경에서 두드러진다. 헨리 8세에 이르러 로마카톨릭과의 단절을 계기로 영국성공회가 탄생하고 시대별로 주요한 종파가 생겨난다. 또한 청교도 혁명과 같은 유험혁명도 영국인들의 종교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말해주고 있다. 종교에 의한 감성혁명은 프랑스 혁명과 같은 급진적인 대륙의 정치혁명의 확산을 저지했고 이로 인하여 영국은 19세기에 들어서 산업혁명과 같은 장족의 발전을 거듭하게 된다. 토의와 타협을 존중하는 영국인의 성향은 의회민주주의의 발달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미 앵글로 색슨

시대에서부터 그러한 전통은 이어진다. 여러 형태의 지방의회가 공개토론과 타협정신을 고취시켰고 국왕이 자문회와 상의하여 국정을 운영했으며 법률제정에는 유력인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한 나라의 문명의 척도는 글문화의 수준에 견주어지는데 영국에서는 9세기에 들어서 알프레드 대왕에 의해 모국어에 대한 공교육령이 내려지고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고대영어)로 쓰여진 연대기가 등장하게 된다. 글문화에 대한 이러한 관심은 후대의 문인들과 지성인들에 의해 지속되어 오늘날 영어는 세계어로서의 위용을 과시하고 있다. 이성과 합리 그리고 객관적 증거를 중시하는 영국인의 의식 성향은 오랜 전통을 지닌 경험주의에 기인한다. 19세기 산업혁명을 일으킨 저변에는 경험주의와 과학적 분석력이 깔려있으며 문화 전반에 걸쳐 이성과 합리에 바탕을 둔 실증적 사고방식은 영국인의 커다란 특성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상에 대한 추구 그리고 그에 걸맞은 지적 탐구와 열의는 낭만주의 초기 시인이었던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그리고 발들  
고대의 그 발들이  
영국의 푸르른 산위로 걸었던 말인가?  
그리고 신성한 양이  
영국의 즐거운 목초위에 보였는가?

그리고 신성한 용모가  
구름긴 언덕위로 비추어졌는가?  
어두운 사탄의 물방앗간이 득실대는 중에서도  
예루살렘이 여기에 세워졌던가?

불타는 불의 활을 내게 가져다주소.  
욕망의 화살을 가져다주소.  
나의 창을 가져다주소; 오 구름이여 개어다오.  
나에게 불로된 황금마차를 가져다주소.

나는 정신적 분투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나의 칼은 내 손에서 잠자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예루살렘을 건립할 그날까지  
영국의 푸르르고 기쁜 땅 그 위에서.

And did those feet

And did those feet in ancient time  
Walk upon England's mountains green?  
And was the holy Lamb of God  
On England's pleasant pastures seen?

And did the Countenance Divine  
Shine forth upon our clouded hills?  
And was Jerusalem builded here,  
Among those dark Satanic Mills?

Bring me my Bow of burning gold,  
Bring me my Arrows of desire,  
Bring me my Spear; O clouds unfold!  
Bring me my Chariot of fire!

I will not cease from my Mental Fight,  
Nor shall my Sword sleep in my hand,  
Till we have built Jerusalem  
in England's green & pleasant Land. (William Blake: 1757-  
1827)

## 참 고 문 헌

- 신용석 역. 『영국사』. 앙드레 모로아 저. 서울: 기린원, 1991.
- Alexander, Michael. *Old English Literature*. London: The Macmillan Press, 1993.
- Crossley-Holland, Kevin. *The Anglo-Saxon Worl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84.
- Doyle, Brian. *English and Englishness*. London: Routledge, 1985.
- Edwards, David L. *Christian England*. London: Collins, 1983.
- Green, I. M. *The Re-establishment of the Church of England*.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Mill, John Stuart. "On the Definition of Political Economy", *Essays on Some unsettled Questions of Political Economy*. London: 1844
- Prescott, W.W. *The Spade and the Bible*. London: Fleming H. Revell Company, 1940.
- Russell, Bertland.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New York: A Touchstone Book, 1972.
- Skilbeck, M. *Culture, Ideology and Knowledge*. Milton Keynes: Open University Press, 1976.
- The New Encyclopaedia Britannica*, fifteenth edition. vol. 29.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93.

Abstract

## A Historical Survey on British Identity

Dongill Lee

This paper deals with British identity by focusing on the characteristics shown in the fields of religion, parliament, literacy, and thoughts.

The various Christian denominations in the United Kingdom have emerged from the schisms that divided the church. The greatest of these occurred in England in the 16th century, when Henry VIII rejected the absolute supremacy of the pope. This break with Rome facilitated the adoption of some Protestant tenets and became the foundation of the Church of England. In the 17th century further schisms divided the Church of England: these were associated with the rise of the Puritan movement, which, with its desire for simpler forms of worship and government, led to a proliferation of nonconformist churches, such as those of the Baptist and the Congregationalists. The great Evangelical revivals of the 18th century, associated with John Wesley and others, led to the foundation of Methodist churches. Seeing the growth of various denominations we can say that the freedom of religion has been given to the people of United Kingdom and Christianity has greatly contributed to the building up the consciousness of British people. The acceptance of diverse denominations has become a major characteristic of British identity and closely associated with political mind of British people.

The origin of parliament system goes back to the 13th century. Edwards I fostered the concept of community of the realm and the

practice of calling representative knights of the shire and burgesses from the towns to Parliament. Many used to refer to the 1295 assembly as the model parliament because it contained all the elements later associated with the word parliament. The development of Parliament suggests that the British has reached reconciliation by means of active debate and discussions. There lies reasonable and rational way of thinking beneath the activity of debate and discussion.

British mind based on reason, experience, and scientific method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Empiricism. John Lock's 'Essay Concerning Human Understanding(1690)' was devoted to account for the genetic origins of the reason that had proved so successful. The school of so called British Empiricism (John Locke, George Berkeley, and David Hume) dominated the perspective of Enlightenment philosophy. The school of Empiricism emphasized experience rather than innate necessary principles, and spread to other areas including literature beyond philosophy, hence it took a major role for building up modern British mind.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can be regarded as a part of British identity: tolerance towards various thoughts, compromise through exchanging of opinions, and way of thinking based on reason and practical evidence.

Key Words : British Religion, British Thoughts, British Literacy,  
British Politics, British Identity

주제어 : 영국의 종교, 영국의 사상, 영국의 글문화, 영국의 정치, 영국의 정체성